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07호

2019. 11. 18.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공정한 인사

대학은 2020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직무군제를 도입하고, 캠퍼스간 전보원칙을 수정하였다.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학은 스스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공정했는가?”

캠퍼스간 전보는 직원 모두가 서울-ERICA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캠퍼스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현재와 같은 불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원 전문성 제고 및 경력계발을 위해 도입되는 직무군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은 맥락이다. 내용에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동안의 인사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었다.

미국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이렇게 말했다. *“신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완전하게 작동하는 통치 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그 어떤 정치인이나 철학자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완벽할 수 없기에 대학 운영에 있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도 반드시 필요하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나름의 불문법이 있다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사라질 것이다.

그동안 전사적으로 팀, 개인 직무를 분석하고 인사 관련 TFT를 발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해온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인 단기적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입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 2020년 1월 정기인사는 실질적으로 15대 김우승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사이기에 그럴 것이다. 총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마느냐의 열쇠는 공정한 인사에 달려있다. 과거 단행된 인사의 단점,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보완, 개선되는지 한양의 눈과 귀가 대학 당국을 향하고 있다.